

양계경영상의

부기회계(Ⅱ)

조 용 회

<영남대 축산대학 강사>

가) 자산(資產 · Assets)

사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일정한 재산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사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재산, 즉 경영용 재산을 부기에서는 보통 자산(資產)이라고 한다.

양계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화폐와 물재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양계를 시작할 때 병아리사료 등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고, 계사, 케이지, 창고 등과 육추시설 손수레 삽등도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경영을 하는 과정에는 남에게 돈을 빌려 준다든가 육계나 계란을 외상으로 판다든가 하는 채권도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상권(地上權)이나 전화가입권 등의 권리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이 양계기업이 갖게 되는 모든 화폐·물품·채권·권리 등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기는 화폐라고 하는 통일된 척도에 의해서 기록 계산되기 때문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화폐로 평가(評價)할 수 없는 것은 부기상 자산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훌륭한 사양관리 기술도 경영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만, 화폐로 평가하기가 곤란하므로 부기상 자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자산 중에서 현금이라든가 외상 매출금·대여금 등과 Broiler·계란·사료·첨가제 등과 같이 단기간 내에 현금화되거나, 단기간내 사용할 자산을 유동자산(流動資產)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사·창고·운반기구·종계·채란계 등과 같이 사업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고정자산(固定資產)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통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의 구별은 기업회계 일반이론에 입각하여 1년 기준이 적용된다 하는데 1년이내에 환금화(換金化)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유동·고정을 구분하는 것이다.

나) 부채(負債 : Liabilities)

기업은 채권을 갖고 있는 동시에 채무도 갖게 된다. 채무(債務)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장차 자산을 제공하여 갚아야 할 의무를 말하는데, 기업이 채권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채무의 총괄을 부채라고 한다. 그러므로 부채란 자산과 반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타인에 대한 재산적 피청구권(財產的被請求權)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도 자산과 마찬가지로 화폐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부담 또는 의무는 부기상 부채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부채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다. 하나는 차입금(借入金)이고 다른하나는 신용매입(信用買入)이다.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서 필요한 금액을 일정한 기간동안 빌리는 것을 말한다. 차입에는 은행에서 대부를 받는다든가, 사채(社債)를 발행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흡수한다든가, 혹은 개인에게서 차용한다든가 여러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어쨌든 그것이 도로 지불되기 전까지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신용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을 매입하는데 있어서 그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고 훗날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외상으로 사드리는 것을 말

한다. 사료나 첨가제 등을 외상으로 사들였을 경우, 이들의 금액도 결국은 지불해야 할 채무이므로 부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육계나 계란을 매도할 목적으로 상인으로부터 선금을 받을 경우도 약속한 상품을 양도하기 까지는 역시 부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부채는 결국 상환해야 할 금액이긴 하나, 그것들이 상환되기 전까지는 기업내에서 다른 자기소유의 자산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수단으로서 이용되는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물론 자기자본(自己資本)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다) 자본(資本)

양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조건으로서 반드시 일정한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위에서 말했는데, 그런 재산은 반드시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계업에서 계사·케이지·사료·현금·계란·닭·외상판매대금(외상 매출금)등과 같은 것은 일정한 형태로 표시되고 있다. 이와같이 경영용 재산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을 자산이라고 하는데, 이 때 전금액의 합계가 100,000원이라고 한다면 그 양계장의 자본은 100,000원이라고 말한다. 즉 이 경우의 양계장에는 자산의 총계가 100,000원이고 따라서 자본도 역시 100,000원인 것이다. 결국 자산과 자본은 같은 액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자산자본”과 같이 된다. 이식이 대차대조표 방정식이 된다.

이와 같이 자산과 자본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자산은 기업의 재산을 구체적인 형태면으로 보아서 말한 것이고, 자본은 전체적인 가치면으로 보아서 말한데 지나지 않는다. 이 양계기업은 100,000원의 자본이 있기 때문에 100,000원의 자산을 갖출수가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이 양계기업의 총자산이 100,000원이기 때문에 이 양계 기업의 자본은 100,000원이라는 것을 알수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산과 자본은 한가지를 가지고 양면에서 관찰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양계장의 재정상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자산 ₩ 100,000 = 자본 ₩ 100,000이 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

자 산
₩ 100,000

(가치)

자 본
₩ 100,000

위의 그림과 같이 이 양계기업의 자산은 100,000원이며, 동시에 자본도 100,000원임을 알 수 있다.

라)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관계는?

이미 우리는 자산=자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양계장의 예를 들어 자산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자산(資產)	자본(資本)
계 사 ₩ 10,000,000	자본금 ₩ 1,230,000
기 구 ₩ 120,000	
사 료 ₩ 50,000	
현 금 ₩ 50,000	
외상매출 ₩ 10,000	
	계 1,230,000 ₩ 1,230,000

그런데 A양계장이 B에게서 현금 ₩ 50,000을 차입하고 C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외상으로 ₩ 100,000어치 매입했다고 하면, A양계장의 재정 상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자산)	(자본)	(부채)
계 사 1,000,000	1,230,000	B에게서 50,000
기 구 120,000		C회사서 100,000
사 료 150,000		
	(50,000+100,000)	
현 금 100,000		
	(50,000+50,000)	
외상매출 10,000		
		계 1,380,000 = 1,230,000 + 150,000

따라서 자산 ₩ 1,380,000 = 자본 ₩ 1,230,000 + 부채 ₩ 150,000이 된다. 그런고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text{자산} = \text{자본} + \text{부채}$$

이것이 곧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 방정식이다. 이 식은 바로 부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므로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결국 부채는 기업 주로 보아서는 자기의 소유는 아니지만 기업 자체로 보아서는 자기 자본과 마찬가지로 경영활동의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자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산은 자본과 부채를 합한 액수와 같으며, 단지 그 소유 관계로 보아서 자본과 부채로 나누어질 따름이다.

그리고 부기는 어디까지나 기업 자체를 주체(主體)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5) 대차대조표(貸借對照表)란?

대차대조표란 경영의 어떤 일정시점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크기를 아주 간결하게 표시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들이 자본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일정기간의 손익상태를 알수 있는 것이다.

이런 대차대조표는 기업이 설립되면 재정상태를 표시하기 위하여 일단 작성되어야 하는데, 이때의 대차대조표를 개시대차대조표(開始貸借對照表)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이 경영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동안의 변화된 재정상태를 알기 위하여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결산대차대조표(決算對借對照表)라고 한다. 그리고 만약 기업이 경영을 더 계속할 수가 없어서 폐업을 하게되면 역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그 시점의 재정상태를 알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폐업대차대조표(閉業對借對照表)라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부기는 대차 대조표에 시작하여 대차 대조표로 끝난다고 해도 무리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정도이다.

그러면 이미 예를 들은 A양계장의 재정 상태를 대차대조표로 나타내어 보기로 하자.

(차변)	대차 대조표	(대변)	
계 사	1,000,000	차 입 금	50,000
기 구	120,000	외 상 매 입 금	100,000
사 료	150,000	자 본 금	1,230,000
현 금	100,000		
외 상 매 출 금	10,000		
			1,380,000

1,380,000 1,380,000

이와 같이 대차대조표 방정식에 따라서 차변

과 대변으로 나누어 표시할 때 이것을 계정식 대차대조표(計定式貸借對照表)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본이 얼마인가를 계산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여 자본을 따로 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된다. 이때 자본이란 “자산—부채”인 것임은 물론이다. 그래서 이것을 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text{자산} - \text{부채} = \text{자본}$$

이것을 자본방정식(資本方程式)이라고 하는데 이 식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만들게 되면 다음 그림과 같이 된다.

대차 대조표

$$\boxed{\text{자 산}} = \boxed{\begin{matrix} \text{부} \\ \text{채} \end{matrix}} \boxed{\text{자} \atop \text{본}}$$

이와 같은 대차대조표를 보고식 대차대조표(報告式貸借對照表)라고 한다.

이런 방법으로 A양계장의 대차 대조표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대차 대조표

(자산)

계 사	1,000,000	
기 구	120,000	
사 료	150,000	
현 금	100,000	
외 상 매 출 금	10,000	1,380,000,

(부채)

차 입 금	50,000	
외 상 매 입 금	100,000	150,000.

(자본)

자 본 금	1,230,000	
		1,380,000

양계 경영 진단은

양계 경영 일지로